

19세기 고창지방 의원 은수룡이 남긴 경험의안

이선아

한국한의학연구원

Abstract

A Study of the Case Records of a Herbalist En Su-ryong in the late Chosun dynasty

Lee Sun Ah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This paper analyzes the case records of a herbalist En Su-ryong who lived at the Kochang area of Chollapukdo province in the 19th century. The records, which were included in his collection of works, Tantojip(吞吐集), were consisted of 11 clinical diagnosis and prescriptions. The result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En Su-ryong's records are estimated to be valuable enough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clinical medicine,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present established prescriptions or medical theory came from the repetition of trial and error by many herb doctors.

Second, his case records are unique in the style of writing, because they were consisted of only his own clinical diagnosis and prescriptions case by case, while those of ordinary herbalists were classified by the types of the symptoms of a disease, with their prescriptions modified from the past established.

Third, in the records he minutely wrote not only the names and the addresses of the patients under his care, but also the names of the diseases, the progress and the contents of his treatment, and even the perfect cure or not. Therefore, his case records are appreciated to be very important from the standpoint of the history of the society.

I. 서론

경험의안이란 한의학에서 임상처방과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의학적 견해가 담긴 글을 말한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의안을 통해 일선 임상의들이 어떤 환자의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기본의서에 나오는 처방에다가 약재를 加減 하거나, 또는 임상의 자신의 관찰과 견해를 근거로 처음 개발된 처방이, 많은 의가들에 의해서, 그 효능이 확인되는 과정을 거쳐서 병증 각 분야에 걸쳐 활용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경험의안이란, 임상에 종사하는, 특히 연구적인 입장에서 종사하는 일선 임상의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생산될 수가 있는 것이며 또 마땅히 생산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그렇게 해서 생산된 의안들은 또 그 나름대로 臨床醫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앞으로 임상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의가들에 의한 많은 경험 처방이 계속 발표되고 그것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그 경험 처방 내지 그와 결부된 의론을 저술로서 남긴 의원이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어쩌면 실지로는 그것들을 남긴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소실 또는 분실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르나 일선의원들이 남긴 경험의안을 구하기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경험의안이 극히 드물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몇몇 의안이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본고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은수룡의 경험의안도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학술적으로나 임상적인 차원에서 아주 귀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기에 필자는 그것을 이번 발표의 주요 과제로 삼아 소개하고자 한다. 은수룡이 남긴 경험의안의 내용을 세밀히 검토 분석함으로써 첫째는 의안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가 임상의학 발전에 얼마만큼 공헌을 하였는가를 부가하고자 하며, 둘째는 그 공헌과 함께 각 지방에서 활동하였던 의가들을 찾아내 재조명함으로써 의가들에 대하여 역사적인 인물로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은수룡은 어떤 인물인가.

은수룡은 19세기 중엽에 전북 고창지방에서 의업에 종사한 의가로서, 1917년 丁未刊인 『幸州殷氏世譜』¹⁾를 보면, 殷壽龍은 1396년(태조 5)에 文科에 급제한 殷汝霖의 16대손으로 高敞지방에 거주한 系派에 속하는 인물이다. 그 記事에 의하면 그는 字가 德中으로

1) 이 족보의 명칭은 『幸州殷氏世譜』이며 목판본 8冊譜로 되어 있다.

1818년(순조 18)에 출생하여 1897년(광무 1) 丁酉년에 향년 80세로 사망하였으며 濟州道 “大靜郡守”를 지낸 것으로 밝혀져 있다. 위 族譜에서는 은수룡이 의원을 하였다는 사실이 나와있지 않으며, 또 그가 남긴 『呑吐集』등 저술에 관한 언급도 없다. 또한 자신이 쓴 「經驗方」의 첫머리에서 자신의 父祖·曾 등 가까운 先代들도 대대로 의업에 종사하였다고 하였는데, 위 족보에서는 그들이 각각 관직을 지낸 것으로만 밝혀져 있다. 예컨대, 그의 父 文珪의 이름 밑에는 “贈通政大夫禮曹叅議”이라는 관직명이, 祖父 慶擘의 이름 아래에는 “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이라는 관직명이, 그리고 증조부 濟東의 이름 아래에는 “贈嘉善大夫漢城府左尹兼都摠府副總管”이라고 적혀져 있을 뿐이다.

은수룡이 남긴 『呑吐集』 5冊에는 각 책마다 안표지 첫머리에 “高敞殷壽龍德中纂輯”이라는 기사가 나와 있다. 여기서 高敞은 물론 그가 고창에서 살았기 때문에 붙인 말이고, 德中은 그의 字이다. 겉표지에 나오는 『呑吐集』의 “呑吐”는 그의 號이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는 이 ‘呑吐’라는 호 이외에도 또 ‘似疑’라는 號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呑吐集』 4冊에서 발견되는 사실이다. 그런데 은수룡의 『呑吐集』 5책중에는 비록 그가 찬집한 것이라고 밝혀져 있으나 사실은 기존의 의서를 초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1책이 있고, 또 비록 그가 찬집한 것이기는 하나 그 내용이 한의학과 적어도 직접적으로는 관련성이 없거나 있어도 아주 간접적이라고 볼 수 있는 2책이 있다.

본고에서는 그 중 제 1책에 실려있는 「경험방」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으며 그것은 모두 44面으로 되어 있는 소책자인데 그 안에 일종의 서론이 있고 그 서론에 이어서 11개의 치료 사례를 소개한 경험의안이 수록되어 있다.

Ⅲ. 殷壽龍의 의학사상

殷壽龍의 「經驗方」은 서론부와 의안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서론부에서 그는 그가 경험방을 남기게 된 배경 내지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그 서론부의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 序文 부분에서 우리는 다음의 두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즉, 하나는 그가 다년간의 경험 끝에 기존의 ‘古方’에 대해서 일종의 회의를 느끼게 되었다는 사실이고, 자기 나름대로의 치료원칙을 확립하였다는 사실이다. 자기 나름대로의 치료원칙을 그는 ‘救本之一法’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殷壽龍이 기존의 ‘古方’에 대하여 일종의 회의를 느끼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이 점에 관하여 그는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원래 자기집안은 대대로 의사였으며 그런 관계로 『醫學入門』이니 『萬病回春』이니 『濟衆新編』이니 또는 『東醫寶鑑』이니 하는 책들이 다 갖추어져 있었으며 그래서 그는 항상 그러한 책들을 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혹은 외우고 혹은 마음깊이 새기는 대목도 많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환자를 대하여 약을 쓸 때마다 전적으로 오직 古方²⁾에 의거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어서 그는 그 ‘古方’의 원칙하에 환자를 치료한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첫째로 부잣집에서 귀하게 자란 연약한 사람들의 경우는 가장 효과를 보기 어려웠다는 것 둘째, 이에 반하여 소탈하게 자란 장건한 사람은 요행히도 차도를 얻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그러나 ‘傷寒의 陰症’이라든가 ‘雜病의 怪症’과 같은 경우에는 그 ‘古方’대로 치료를 하였을 경우 그 결과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傷寒의 陰症이나 雜病의 怪症과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古方’에 있는 법대로 치료하였다가 환자가 죽었을 경우에는 으레 天命의 탓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와반대로 환자의 목숨을 구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이 사실은 그 환자 본인이 타고난 수명이 길기 때문에 얻은 효과인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의사인 자기가 유능해서 고친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것이 사실은 비단 자기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온세상 의사들이 그렇다는 것을 첨가하고 있다.

그러나 殷壽龍은 그 ‘古方’이라고 하는 것이 체계가 서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말하는 ‘救本³⁾’의 방법을 고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古方’을 ‘支離之古方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아무튼, 殷壽龍은 그 지리한 고방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나름대로 찾아낸 ‘救本の 治療法’을 기준으로 하여 환자를 치료한 후로부터 수 년동안 많은 사람을 살렸으며 그 결과 집안간이나 친지들 사이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救本法’이란 무엇인가. 다음에 이점을 검토하여 보자. 그는 그 ‘救本法’을 서론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첫째, 사람이란 水·火·氣·血 이 네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이 전부라는 것, 둘째, 병의 ‘外變萬像⁵⁾’ 증세는 그 원인을 헤아리기가 매우 어려우나 그러나 그 근본은 오직 한가지 이치로 요약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어서 그는, 그 한가지 이치를 다음의 네가지 조목 즉, 火盛·水濁·氣虛·血衰의 네가지 조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지금 그 설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火가 盛한 者는 때로는 腎水가 고갈되고 때로는 冷寒이 暴入하여 龍火⁶⁾가 발동하고 때

2) 원문은 “一依古方”이다. 즉, 전적으로 위에서 열거한 기존의 醫書 즉, 『醫學入門』이나 『萬病回春』 등에 나오는 기존의 처방에 의존하여 치료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3) 밖에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기에 앞서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어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질병의 증세가 심각하면 밖에 나타난 증상을 먼저 치료해야 한다.

4) 支離之古方이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古方 즉, 체계가 잡혀있지 않는 古方이라는 뜻이다.

5) 外變萬像이란 병으로 인해서 밖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세를 일컫는다.

6) 龍火는 腎火를 말하며 命門之火 또는 龍雷之火라고도 한다.

로는 怒氣가 格騰⁷⁾하여 ‘秋失其令’⁸⁾하고 ‘雷火’가 上冲⁹⁾한다.

水渴者 즉, 水氣가 말라붙은 자는 그 원인이 혹은 用之太過¹⁰⁾한데가 있고 혹은 年老하여 無資 즉, 精의 근본이 없어진데에 있다.

다음에 氣虛者 즉, 기가 허한 자는 그 원인이 혹은 지나치게 체력을 소모한데 있고 혹은 음식을 지나치게 소량으로 취한데 있다.

끝으로 血衰者란 그 원인이 오직 한가지 즉, 氣가 통행되지 못한다는 그 한가지에 있다.

모든 병증에 근원을 따져보면 그것들이 오직 一理에서 온 것이요, 그 一理는 火盛, 水渴, 氣虛, 血衰 이 네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한 殷壽龍은 그러한 이론에 입각해서 病의 뿌리를 알고 그 병의 밖에 나타난 증상을 알게 되면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실지 임상치료에 있어서는 또 어려운 점이 세가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 세가지란 첫째는 병의 증세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파악하느냐 하는 점이고 둘째는 약재를 사용함에 있어 각 약재의 경중을 어떻게 하면은 적절하게 조절하는 점이나 이며 셋째로는 어떻게 하면 환자로 하여금 의사를 전폭적으로 믿게 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서문에 나타나는 은수룡의 醫論 가운데에는 그가 治病에 있어 기존의 方을 단순히 準用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보다 기본적인 또는 철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사실만은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의 그러한 노력이 놀랍게도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이 다음에 소개할 經驗의안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

IV. 殷壽龍의 經驗의안의 구체적 사례

은수룡의 經驗의안은 모두 11개의 치료 사례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밝혀두고 싶은 것은, 은수룡은 사례 모두가 ‘傷寒의 陰症’이라든가 ‘雜病의 怪症’의 내용만을 싣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은수룡의 의론이 담긴 經驗의안을, 임상서로서의 가치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그 의안 하나하나의 내용을 검토하는 작업부터 수행하기에 앞서, 그 내용을 번역의 형식으로 소개하겠다.

7) 격등이란 화가 위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말한다.

8) 추실기령이란 마음이 그 통제력을 잃게 된 것을 말한다.

9) 상충이란 화가 위로 향해서 돌격한다는 뜻이다.

10) 용지태과는 精을 지나치게 소모한 것이다.

1. 治茂長權老第三子脫症

1) 원문

茂長權老審一 素知風水 頗明五行 與余自來最厚 其三子 年二十 娶妻於長城地 冬月欲往妻家 路過高敞邑 適逢親知鄭班 入於酒肆 爛飲數盃 又食冷柿數箇 後因向妻家 越嶺而去矣

卽發戰寒頭疼身熱之症 醫者用下滯 敗毒和解之劑 病轉入深 作嘔吐耳聾煩渴 則又用冷寒攻下之劑 病遽至危

妻家大驚 擔舁歸家 連用傷寒陰症之藥 於焉十餘日 不省人事 言語不通 胸滿發狂 如癩病之狀 一室慌慌

其父仔細錄病 遣其次子 問之於余 余欲和劑用藥 而在傍之醫 沮¹¹⁾戲莫禁 若用小劑 則惟償其所寫 萬無救命之道 然不可坐視 遂成白朮二兩 人蔘一兩 麥門冬三錢 附子一錢 五味子七分 之劑 而於病藥勢甚輕 心甚不快 而又欲加之 則傍論難禁 不用可慮 乃作書一封 付于其父云 若不用此藥 此子卽泉下之人也 余亦人也 豈可以藥殺人乎 用藥雖死 猶勝於坐而待死 幸勿疑焉 果然衆謗並起 責其父兄云 若用此藥 身如火炭 踊躍必死云 而其父排論 濃煎碗餘 分三次服之矣 服後就枕小睡 半夜後 覺而覓飲 一家大喜 賜米飲一器 飲後精神如常 言語始辨 急遣次子而報喜 余云藥果入喉 此子生矣 又用如前一劑 繼用八味湯 加牛膝 麥門冬 五味子 十貼 又用補中益氣湯五貼 調攝快蘇 其後率子來見曰 此子卽君之所賜云矣

2) 국역

고창군 무장에 사는 권노인의 셋째아들의 탈증을 치료한 이야기

茂長에 사는 權審一노인은 평소 풍수를 알고 五行에도 자못 밝으며 나오는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이이다. 그의 셋째아들이 스무살에 장성 땅으로 장가를 갔는데, 겨울에 그가 처가에 가기 위해 고창읍을 지나다가 우연히 친지 정씨를 만나 함께 주막에 들어가 술을 실컷 마셨다. 그리고 나서 또 차디찬 홍시를 몇 개 먹고 친지와 헤어져 다시 처가가 있는 장성으로 향하여 산고개를 넘어갔다.

그런데 처갓집에 도착한 후 갑자기 심한 한기와 두통 및 신열의 증상이 일어났다. 이에 의사가 “下滯 敗毒 和解”의 약 즉, 체를 내리고 독기를 제거하고, 속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그러한 약을 썼는데 그러나 병은 오히려 점점 더 깊어 갔으며, 구토를 하고 귀가 멍멍 울리며 가슴이 답답하고 입안이 바싹바싹 마르는 증세가 나타났다. 그러자 의사는 또, ‘냉한공하지제’ 즉, 약성이 극도로 찬, 그리고 체내의 모든 음식을 설사하게 하는 그러한 약을 썼다. 그러나 그 약으로 병은 오히려 갑자기 위독한 상태로 변하였다.

11) 沮: 원문에는 ‘沮’로 나온다.

이에 처가의 식구들이 대경실색하여 그를 가마에 실어서 무장에 있는 본집으로 데려왔으며 집에 돌아온 후로는 (어느 의원이 말아) 상한·음증을 다스리는 약을 계속하여 썼는데 그렇게 한 지 십여일이 되자 환자는 아예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며 흉만 발광하여 마치 간질병과 같은 모습을 보였으며, 온집안 식구들이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에 권노인이 병세를 자세하게 기록하여 그 둘째아들을 나에게 보내어 부탁하였다. 그래서 내가 처방을 쓰고 약을 지으려하니 옆에 앉아있던 의사가 빈정대며 계속 편찬을 놓는 것이었다. 그러나 만약 가벼운 약을 쓰면 다만 설사로 인해서 축난 것만을 보충할 수 있을 뿐이지 목숨을 구하지는 못할 것이 분명하였다. 그렇다고 앉아서 죽는 것을 볼 수만은 없기에 마침내 결단을 내려, 백출 2냥, 인삼 1냥, 맥문동 3전, 부자 1전, 오미자 칠푼을 넣어 약을 지었다. 그렇게 짓고 보니 병에 비하여 약의 힘이 너무 약한 것 같아 그 점이 마음에 걸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또 약재를 더 첨가하게 되면 틀림없이 주변에서 말이 많을 것이요 그렇게 되면 약을 아예 안쓸까 염려되어 그대로 보내기로 하고 편지 한 장을 써서 환자의 아버지에게 약과 함께 보냈다.

그 편지에서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즉, “만약 이 약을 쓰지 않으면 당신 아드님은 틀림없이 죽을 것입니다. 나도 또한 사람인데 어찌 먹고 죽을 약을 쓰겠습니까. 또 설상 이 약을 써서 그 결과로 죽는다손 치더라도, 아무 대처도 하지 않고 앉아서 그저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원컨대 의심을 품지 말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그런데 그 집에서는 약을 받아보고 나서 과연 많은 사람들이 반대의견을 내며 환자의 父兄을 책망하고 나섰다고 한다. “만약 이 약을 쓰게 되면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결국은 팔짝팔짝 뛰다 죽을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반대의견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환자의 아버지는 그러한 주변의 반대를 물리치고 약을 꼭 달여서 그것을 세차레로 나누어 복용하게 하였더니 환자가 이내 잠이 들어 얼마동안 자다가 한밤중에 깨어나 물을 찾았고 이에 온 집안 식구들이 기뻐하며 미음을 만들어 한 그릇을 주었더니 그것을 마시고 나서 정신이 평상시의 모습으로 돌아서고 말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권노인은 바로 둘째아들을 보내어 이 기쁜소식을 나에게 전해주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이제 약이 병자의 목에 들어갔으니 이 아들은 살았소”라고 하였다. 그리고 앞서 지었던 그 약을 그대로 한계를 더 쓰고, 이어서 팔미탕에 우슬, 맥문동, 오미자를 넣어 10첩을 썼고 거기에 다시 보중익기탕 5첩을 썼더니 환자가 기운을 되찾고 회복이 빨랐다. 얼마후 그 권노인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말하기를 이 아들은 자네가 살려준 것이네 하였다.

3) 고찰

가) 원인과 증세

추운겨울날씨에 먼 길을 걷다가 술을 많이 마시고 거기에 또 차가운 홍시를 몇 개 먹은 끝에 다시 찬바람을 쐬며 고갯길을 넘다가 발병한 것으로 그 증세는 ‘戰寒 頭痛 身熱’의 증세였다.

나) 타의원들의 치료

下滯敗毒和解之劑를 썼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병이 더욱 깊어져 ‘嘔吐 耳聾 煩渴’의 증세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冷寒攻下之劑’를 썼는데 병은 오히려 위독해졌다. 이에 (본가에 돌아와) ‘傷寒陰證’의 약을 연용하였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어언 10여일이 지났고 결국 환자는 ‘不省人事, 言語不通, 胸滿, 發狂’의 증세를 일으켜 마치 간질병의 모습을 보였다.

다) 은수룡이 취한 治法

은수룡은,

白朮二兩	附子一錢
人蔘一兩	五味子七分
麥門冬三錢	

을 처방하고 생각하기를 이와같은 약은 환자의 병세에 비하면 그 약의 勢가 너무 輕한 편이어서 마음에 걸렸으나 그렇다고해서 더 약재를 가하면 환자의 주변 사람들이 반대를 할 것이요 그렇게 되면 아예 약을 쓰지 않을런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어 환자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서 이 약을 쓰라고 부탁을 하였다.

그 후 안 사실이지만 과연 환자의 집에서는 “만약 이 약을 쓰게 되면 몸이 불덩이가 되어 찢쩍쩍 뛰다가 죽을 것이다”고 하였는데 그 반론들을 물리치고 약을 복용시킨 결과 처음에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자 미음을 주자 그것을 마시고 나서 정신이 돌아서고 말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은수룡은 다시 같은 약을 한제를 더 썼고 이어서 팔미탕에 우슬, 맥문동, 오미자를 가해서 10첩을 썼고 또 이어서 보중익기탕 5첩을 써서 완치되었다고 한다.

라) 참고사항

이를 분석하면 찬바람을 맞고 음주를 하고 거기에 찬홍시를 먹고 또다시 찬바람을 맞아 內傷을 일으킨 것이다. 이러한 內傷에 外感藥을 써서 땀을 내어 氣가 빠져 허열이 일어나게 되고 그 허열을 眞熱로 잘못보고 냉한공하지제를 썼다. 그리하여 亡陽증이 겹치게 되어 완전히 氣脫이 된 것이다. 이에 은수룡은 부자이중탕에 생맥산을 처방한 것이다. 부

자이증탕은 性이 大熱하여 陰寒증을 다스리며 생맥산은 熱傷한 元氣를 따뜻하게 덥혀주는 작용을 한다.

다음에 팔미탕에 우슬, 맥문동, 오미자를 넣은 것을 맥미지황탕이라고 하는데 이는 육미탕에 肉桂와 附子가 가감되고 맥문동, 오미자를 가미시킨 것으로 淸肺止咳 작용을 한다. 우슬은 인삼과 부자로 인한 열이 상충되는 氣를 下氣시킨다.

2. 治宋和中子婦氣虛鬱結症

1) 원문

余一日閑坐 有何老人 乘輜而來訪 余出門迎入 通其姓名 則興德沙浦居 宋老和中也 問其來由 曰有寡子婦 年可四十餘 自數月前 卒發身病 寒熱頻作 萬身攻疼 然而本不飲藥 以至今日 飲食 全無所納 身體瘦羸 胸服滿沖 頭髮片落 可謂鬼形 願賜良劑云 余思積年寡居 鬱氣可知 故先用逍遙散五貼 後朝服 八味湯加牛膝 麥門冬 五味子 午後服 黃芪 白朮 人蔘 各三錢爲君 白芍藥 當歸 酸棗¹²⁾仁 香附子爲臣 陳皮 甘草 砂仁爲佐使 各服二十貼矣 飲食如舊 落髮復生 氣力倍加而全愈

2) 국역

송화중 子婦의 기허울결증을 치료한 이야기

하루는 내가 한가로이 앉아있는데 노인 한 분이 가마를 타고 찾아왔다. 내가 문밖으로 나가 맞이하고 통성명을 한즉, 그 노인은 흥덕 사포에 사는 송화중이라는 분이였다. 나를 찾아온 연유를 물으니 그 노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즉, 자기에게는 나이가 마흔살인 홀로된 자부가 있는데 수개월전부터 갑자기 병이나 오한 발열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온몸이 쭈시고 아픈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그러나 본래가 약을 전혀 먹지 않는 터이라 그대로 오늘에 이르렀으며 이제와서는 음식도 전혀 삼키지 못하고 그래서 몸은 수척해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배는 그득하며 머리카락이 빠져 가히 귀신의 물골이라고. 그러니 좋은 약을 처방하여 달라는 것이였다.

이 말을 듣고 내가 생각해 보니 오랫동안 홀로 살아 기가 울체되어 일어난 병임이 분명하였다. 그래서 먼저 소요산 5첩을 복용케 한 뒤에 아침에는 우슬·맥문동·오미자를 첨가한 팔미탕을 복용케하고, 오후에는 황기·백출·인삼 각 3전을 君으로 하고, 백작약·당귀·산조인·향부자를 臣으로 삼고 진피·감초·사인을 佐使로 한 약을 쓰되 각각 20첩씩을 복용케 하였다. 그랬더니 음식도 옛날같이 잘먹고 머리도 다시 생겨났으며, 기력도 전보다 배나 좋아지면서 완쾌하였다.

3) 고찰

¹²⁾ 원문에는 '감'字로 나와 있다.

가) 증세와 원인

40여세의 과부로 있는 송씨 며느리가 갑자기 병으로 눕기 시작하였는데 ‘寒熱頻作 萬身攻疼’하였으며 그러한 상태로 수개월을 지내왔는데 그간에 약도 먹지 않고 음식도 일체 먹지 못하여 몸이 야윌대로 야윌고 가슴과 배가 그득하고 머리가 다 빠져 가히 귀신과 같은 모습을 하게 되었다.

나) 은수룡의 처방

은수룡은 생각하기를 다년간 과부로 있는 과정에서 鬱氣가 쌓였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먼저 소요산 5첩을 쓴 후 이어서 아침에는 팔미탕에 우슬과 맥문동·오미자를 첨가한 것을 복용케하고, 오후에는 황기·백출·인삼 각 3전을 쑤어 君으로 하고, 백작약·당귀·산조인·향부자를 臣으로 삼고 진피·감초·사인을 佐使로 한 약을 복용하되 각각 20첩씩을 복용케 하였다.

다) 참고사항

은수룡은 맨처음 소요산을 썼는데 이 소요산은 울결을 풀어준다. 팔미탕에 우슬, 맥문동, 오미자는 울결되어 上熱下寒하는 상화망동하는 것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작용을 한다. 황기·백출·인삼·백작약·당귀·산조인·향부자·진피·감초·사인을 넣은 것은 귀비탕에서 원지, 용안육, 백복신, 목향이 뺀 처방이다. 귀비탕은 補脾, 益氣, 養心, 安神하는 功이 있다.

3. 治申班長子陰症

1) 원문

隣村申班 卽農業資生之人也 其子年二十一 艱辛定婚 右子房外 有何所犯 仍爲病臥 時作寒熱 肢節皆痛 以無識之致 只用常藥 發表和解之劑 乍作乍止 拋至二十餘日 虛者益虛 臥而不起 不知痛處 病情急迫 來余而問 細究所祟 則陽證尙狂 故七分補藥 小加柴芩防羌之屬矣 服後轉遽 幾至死境 其父大劫喘息來到 語其急狀 余亦驚心 此子若死 必怨我用藥之誤矣 然而病無所懼 惟畏更不用藥 乃言之曰 此子之命 在於我手 結者鮮之 願更用一貼 其父幸諾 遂用黃芪·白朮各一兩 人蔘五錢 麥門冬二錢 附子一錢 五味子五分矣 一劑而精神微爽 又用一劑 得甦 其父持南草一把 來賀曰 此子拾於北邙山中云矣

2) 국역

신양반의 큰아들의 음증을 치료한 이야기

인근 마을에 사는 신양반은 농사 짓고 사는 사람이었다. 그에게 아들이 있는데 21살이 되어서야 간신히 혼인을 하였다. 그런데 그 아들이 다른 여자와 관계한 바가 있어 이내

병으로 눕게 되었으며 수시로 한열이 일어나고 사지와 뼈마디가 아픈 그러한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집안 어른들이 무식한 탓으로 그저 평범한 “발표화해지제” 즉, 땀을 내어 체내의 열을 푸는 그러한 약을 썼으며 그 결과 병세가 때로는 좀 낫기도 하고 때로는 다시 더하기도 하였는데 그렇게 하기를 20여일이나 끝다보니 병자의 虛症이 더욱 심해져서 이제는 아예 누운채 일어나지도 못하고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게 되었다. 병세가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이르자 그의 아버지가 나에게 와서 대책을 묻는 것이었다. 이에 여러 가지 자세한 상황을 물어 병의 뿌리를 상고해보니 그것은 陽證이 아직도 왕성한 상태였다. 그래서 나는 ‘七分補藥¹³⁾’에 柴胡·黃芩·防風·羌活 등 약재를 小量을 加하여 복용케 하였다. 그랬더니 그 약을 먹고 병세가 오히려 크게 악화되어 거의 사경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래서 그 아버지가 크게 놀라 숨을 헐떡거리며 달려와서 그 급박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에 나도 또한 놀랐다. 그 아들이 만약 죽게 되면 반드시 내가 약을 잘못 써서 죽었다고 원망할 것이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병세 그 자체는 두려워할 바가 못 되었다. 문제는 저들이 (약에 놀라) 다시는 약을 안 쓸 것 같아 그 점이 두려웠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즉, “이 아들의 목숨은 내손에 달려 있소. 結者解之라 하였으니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치료를 하리다. 그러니 원컨대, 약 한 첩만 더 써 봅시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다행히도 그 아버지도 승낙을 하였으며 그래서 나는 황기·백출 각 1냥에 인삼 5전, 맥문동 2전, 부자 1전, 오미자 5푼을 넣은 약을 지어 주었는데 한계를 복용하고 나서 환자의 정신이 조금 나아졌으며 다시 1제를 썼더니 완전히 회생하였다. 이에 그 아버지가 담배 한갑을 가지고와서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 아들을 (죽은 자들이 묻혀있는) 북망산에서 주워왔다고 하였다.

3) 고찰

가) 증세

나이 21세에 간신히 정혼을 한 (이웃마을) 신씨의 아들이 갑자기 병에 눕게 되었는데 시시로 한열증이 일어나 사지가 매우 아픈 상태였다. 그런데 그의 가족들이 무식한 탓으로 이러한 증세에 으레 쓰는 “발표화해지제”를 썼더니 병세가 때로는 왕성해지고 때로는 멈추고 하여 20여일이 지났으며 그러다 보니 虛氣가 더욱 심하여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한다.

나) 은수룡의 처방

이에 은수룡은 陽證이 아직도 있다고 진단하고 ‘칠분보약’에 소량의 柴胡·黃芩·防風·羌活 등을 가하여 복용시켰는데 그 결과는 오히려 병이 갑자기 악화되어 거의 사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은수룡은 그의 아버지에게 부탁하여 다시 위의 약을 한 첩을 더 쓰

¹³⁾ 보법은 일반적으로 환자의 증세 및 허약의 정도에 따라 峻補와 緩補로 크게 나눈다. 여기서 七分補法이란 7할 정도는 보하는 약재를, 나머지 3할은 瀉하는 약재를 써서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게 하고 이어서,

황기	맥문동 2전
백출 각 1냥	부자 1전
인삼 5전	오미자 5푼

을 지어 한제를 복용시켰더니 정신이 조금 되살아났고 다시 한제를 더 썼더니 완전히 소생하였다고 한다.

4. 治朴雅第三子失眞

1) 원문

平支村 朴雅第三子 年十八 自冬至春 讀書甚勤 一日朝飯次 歸家之路 跣足臥木 仆地而起 矣 仍爲失眞 不知親疎 狂言虛笑 誦書作詩 猶勝平時 其父素知醫術 以安神定魂之劑連服 無效 至于數朔 漸益難禁 不得已來問于余 余思未成之兒 勤於所工 精神耗損之際 自曉至朝 讀之誦之 朝飯歸路 因木仆地 又兼氣虛可知 故六味湯 加人蔘·白朮·遠志·石菖蒲 使之朝服 六味湯補肝母 人蔘·白朮補脾 遠志·菖蒲安心 然其所乘之邪 不可不除 故鐵液水調 清心丸一個 午後服之矣 三日後 精神如常 完若平時 爲其父兄者 喜不自勝 每當節日 送饌來賀矣

2) 국역

친구 박형의 셋째아들의 실진 치료한 이야기

평지촌에 사는 박형의 셋째아들은 18살인데 겨울부터 봄까지 글공부에만 빠져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아침을 먹으러 서당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길에 넘어져있는 나무에 발이 걸려 땅에 넘어졌다가 일어났다. 그런데 이때부터 정신을 완전히 잃어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며 때로는 웃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서도 글을 죽죽 외우고 또 詩도 짓고 그러는데 그 외우는 능력이나 글 짓는 솜씨가 평상시보다 오히려 나왔다.

그 아버지는 평소 의술을 아는 사람이어서 ‘안신정혼지제’ 즉, 극도로 흥분한 정신을 진정시키는 약을 지어 그것을 계속 복용케 하였다. 그러나 효과가 없었으며 그러는 중에 몇 달이 지나니 병세는 점점 더하여 이제는 아주 어렵게 되어버렸으며 그때서야 그의 아버지는 부득이 나를 찾아와 대책을 묻는 것이었다. 이에 나에게 처방을 물었다. 내가 곰곰 생각해보니 아직 成年이 되지 못한 사람이 너무 공부에만 힘써 그 정신이 극도로 소모된 상태인데 거기에 또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까지 읽고 외우고 하느라 지쳤고 그러한 몸으로 아침 먹으러 귀가하다 길에서 넘어졌으니 이제는 氣虛의 증세까지 겹쳐진 것이 분명하였다. 그래서 나는 육미탕에 인삼·백출·원지·석창포를 더하여 이를 아침에 복용케 하였다. 이 경우 육미탕은 간을 보하고, 인삼과 백출은 비장을 보하고, 원지와 창포는

놀란 심장을 안정시키는 구실을 하는데, 그러나 환자의 헛증을 틈타 침습한 邪氣만은 불가불 제거하여야 하기 때문에 ‘철액수’ 즉, 무쇠를 담가 우린 물에 청심환 한개를 오후에 복용토록 하였다. 그랬더니 3일후에는 정신이 정상 상태로 회복되어 평상시와 조금도 다름이 없게 되었다. 이에 그 부형들이 기뻐마지 않았으며 그후로는 매 명절 또는 절일마다 음식을 보내며 축하의 뜻을 표하였다.

3) 고찰

가) 증세

박씨의 셋째아들은 나이 18세였는데 지난 겨울부터 금년 봄에 이르기까지 이웃마을의 서당에 다니며 글읽기에 열중하던 중 어느날 아침에 조반을 먹기 위하여 집에 돌아오는 도중에 길에서 넘어졌는데 그 길로 ‘실진’ 상태가 되어 親疏도 몰라보고 미친 소리를 하고 헛웃음을 짓다가도 때로는 책을 외우고 시를 짓기를 오히려 평상시보다도 더 잘하는 그러한 증세를 보였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평소 의술에 상식이 있어 ‘안신정혼지제’를 연이어 복용케 하였는데 그렇게 몇 달을 하였어도 효과가 없었으며 오히려 증세가 심하여졌다고 한다.

나) 은수룡의 처방

은수룡은 생각하기를, 아직 미성년자가 지나치게 공부에 열중하다보니 정신이 극도로 쇠약해졌는데 그러한 상황속에서도 새벽부터 글을 읽고 외우고 난 후 조반을 먹기 위하여 집에 돌아오다가 나무에 걸려 땅에 넘어졌으니 氣虛證을 겸하게 된 것은 불문가지라고 이렇게 진단하였다. 그래서 그는 육미탕에 인삼·백출·원지·석창포를 더하여 이를 아침에 복용케 하였다. 여기에서 육미탕은 간을 보하고, 인삼과 백출은 비장을 보하고, 원지와 창포는 놀란 심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약인데 그런데 이미 침범한 사기는 불가불 제거하여야 하므로 위 약과는 따로 청심환 한알을 철액수에 갈아서 오후에 복용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3일 후부터는 정신이 정상화가 되고 평상시의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한다.

5. 治興德細谷朴老姪女怪證

1) 원문

細谷朴老乃七 以針醫名於一世 其姪女年十八 卒發寒熱 累日呻吟矣 不時有物上沖 入於頭與肩臂 則精神昏迷 汗出則止 或流注於兩脚 則突出如拳 精神又迷 汗出則亦止 一日二三次 其叔鍼藥發施 小無差效 其親父 恃兄之才 而將過一朔 至於危急 不得已來余而問 余情知其病由 以熟地黃八錢 山藥·山茱萸·牛膝·麥門冬 各二錢 白茯苓·牡丹·澤舍 各一錢五分 附子一錢 肉桂 五味子 各五分 使之煎濃 冷服矣 二貼全愈 時醫那知百病之來 莫不由命火離宮 二九之女 別無所傷 而冷寒暴入 龍火失巢 奔走上下 汗出則外越而止 若非神聖

逐其寒邪 引火歸源之法 何能奏功乎

2) 국역

홍덕 세곡에 사는 박내칠노인의 질녀의 괴증을 치료한 이야기

홍덕 세곡에 사는 박내칠노인은 침을 잘 놓는 의사로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람이었다 그런데 나이 18세된 그의 조카딸이 갑자기 오한과 열이 번갈아 나며 며칠을 그렇게 신음하였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몸안에서 불시에 느닷없이 무엇인가가 위로 치솟아 머리와 어깨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나면 정신이 혼미해졌다가 땀이 흥건하게 나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증세가 생기고, 때로는 그 무엇인가가 두다리 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그럴때에는 다리쪽에 주먹같은 혹이 불거져 나오며 정신이 또한 혼미해졌다가 땀을 흥건하게 흘린 후에 다시 정상을 되찾곤 하는데 그렇게 하기를 하루면 두서너차례나 하였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소녀의 叔父는 침도 놓고 약도 썼으나 조금도 효과가 없고, 환자의 아버지는 兄의 재주만 믿는 가운데 거의 한달이 다 되어갔는데 병세는 이제 아주 위급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때서야 부득이 나에게 와서 대책을 묻는 것이었다. 이제 나는 그 병의 원인을 알 수 있었기에 숙지황 8전에 산약·산수유·우슬·맥문동을 각 2전, 백복령·목단·택사를 각 1전5푼, 부자 1전과 육계·오미자를 각 5푼을 가한 약을 지어주어 이를 아주 진하게 달여서 차게 식혀서 마시게 하였다. 그랬더니 2첩을 먹고 완전히 나왔다. 요즘 의원들 중에 모든 병이 (체내의) 命門火가 당연히 있어야 할 제자리를 떠나는 데에서 유래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 환자로 말할 것 같으면, 18세난 처녀가 별로 다친데도 없었지만 극심한 冷寒證이 갑자기 체내에 침입한 火로 龍火가 제자리를 잃고 위아래로 쏘다니다가 땀이 나게 되면 일시적으로 멈추고 하였던 것이니 아주 영특한 판단으로 우선 체내에 들어온 ‘찬 邪氣’를 몰아내고 집을 잃고 들떠서 위아래로 헤매고 있는 龍火를 끌어당겨 원래의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방법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능히 치료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3) 고찰

가) 증세

18세된 여자가 갑자기 寒熱症을 일으켜 며칠동안 신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불시에 마치 몸 안에서 어떤 물건이 치밀어 올라와 머리와 어깨와 팔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고 그러한 증세가 나타나면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그러다가 땀을 흠뻑 흘리고 나면 바로 정상으로 되돌아오고, 그런가하면 또 마치 몸 안에서 무엇인가가 위로부터 양다리쪽을 향해서 쏟아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렇게 되면 양다리 쪽에 주먹같은 돌출물이 생기는데 그 단계에 오면 역시 정신이 또 혼미상태에 빠졌다가 땀을 흘리고 난 뒤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증세를 보였다. 그러한 증세가 하루에도 두서너차례씩 일어나고 있었다.

이 환자의 숙부인 박내칠 노인은 원래 유명한 針醫로서 세상에 알려진 사람이요 醫藥에 관해서도 어느정도 상식을 가지고 있기에 침과 약 두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시도하였으나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한달을 보내고 보니 환자는 거의 위급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한다.

나) 은수룡의 처방

위 환자에 대하여 은수룡은,

熟地黃 八錢	白茯苓
山藥	牧丹
山茱萸	澤舍 各一錢五分
牛膝	肉桂
麥門冬 各二錢	五味子 各五分
附子一錢	

을 진하게 달여 차게 마시게 하였더니 2첩으로 완전히 치료가 되었다. 은수룡은 자신이 위와 같은 약을 쓴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세상의 의원들이 어찌 모든 병의 근원이 命火離宮 즉, 명화가 마땅히 있어야 할 궁을 떠나는데서 병이 오지 않는 것이 없다는 진리를 알겠는가. 이제 겨우 18세가 된 여자로서 특별히 다친데도 없었지만 극심한 냉한증이 갑자기 체내에 침입하였기 때문에 용화가 제자리를 잃고 온몸에 돌아다니다가 땀이 나게 되면 일시적으로 밖으로 흘러 넘어가 멈추곤 한 것이다. 그러니 아주 영특한 판단으로 그 寒邪를 쫓아내고 인화귀원 즉, 우선 체내에 들어온 '찬 사기'를 몰아내고 집을 잃고 들떠서 위아래로 헤매고 있는 용화를 끌어당겨 원래의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방법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능히 치료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6. 治長城朴童癇病

1) 원문

長城朴童 年十三 自十一歲 忽然仆地 精神昏迷 口吐白沫 頃之更生 自是之後 或一月一次 或二月三四次 漸漸頻作 其父家勢稍饒 以癇症藥 無數措治 小無差減 至於十三歲 一日一次 或二三次 畢竟無時發作 身體瘦羸 臥而不起 言語不通 只有呼吸而已 其父本不知余 有隣人之勸 來余而言症 余思所見 雖是危急 非一朔間死症 未來病之差 不差姑舍 不得已先救其命 而幾希之陽 不可不扶 故黃芪爲君 人蔘白朮爲臣 甘草陳皮柴胡肉桂爲佐 附子升麻各三分 爲使 連服二十貼矣 精神漸長 言語能辨 行步任意 而氣盛身肥 然癇病如前云 乃以鬱金七兩 明礬三兩 細末綠豆大糊丸 每六十個式 食後白湯吞下矣 一劑而癇症悉去 更不發作 然大抵癇病之隨證調治 補瀉先後 理在玄妙 不可執一而言也

2) 국역

장성에 사는 박소년의 간질병을 치료한 이야기

장성에 사는 박소년은 나이가 13살인데 11살부터 갑자기 땅에 넘어진 뒤 정신을 잃고 구토를 하며 입에 흰거품을 품다가 얼마쯤 지나면 되살아나는 그러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이때부터 그러한 간질증세가 어떤 때는 한달에 한번, 어떤 때는 두달에 서너차례씩 나타나더니 점점 그 발작의 횟수가 잦아졌다. 그 소년의 아버지는 집안 살림이 넉넉한 편이라 약을 수도 없이 썼는데 그러나 조금도 차도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 아이가 열세살이 되어서는 발작이 하루에 한번 혹은 두세번씩 일어나더니 필경에는 시도때도없이 일어났으며 그러다보니 몸이 야윽대로 야윽어 아예 누워 일어나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게 되고 숨만 겨우 쉴 뿐이었다. 그 아버지는 원래 나를 알지 못하였는데 이웃사람 중에 나를 이야기하며 한번 가보라고 권하는 이가 있었다며 찾아와서 증세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의 말을 듣고 내가 진단해보니 비록 위급한 병이기는 하나 한달안에 죽을 증세는 아니었다. 그러나 현재 앓고 있는 간질병 그 자체야 고치든 못고치든 우선은 그 목숨부터 불가불 구해야 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거의 다 꺼져가는 陽氣를 북돋아 주어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황기를 군으로 삼고 인삼과 백출을 신으로 하고 감초와 진피와 시호 및 육계를 좌로 하고 부자와 승마 각 3푼을 사로 하는 약을 20첩을 지어 이를 계속 복용케 하였다. 그랬더니 정신이 점점 살아나고 말도 제대로 하게 되며 行步도 마음대로 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력이 성하여지고 몸도 살찌기 시작하였는데 그러나 간질병만은 여전하였다. 그래서 나는 울금 7푼, 명반 3냥을 가루로 곱게 빻아서 이것으로 환약을 녹두크기만큼씩 만들어 식후에 한차례에 60개씩을 백당 즉, 따뜻한 물로 삼키게 하였다. 그렇게하여 1제를 먹고나니 간질병이 다 나아서 다시는 발작하지 않았다. 그러나 간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그 증세에 따라 補를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瀉를 먼저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理致가 워낙 오묘하고 복잡한 것이어서 그 중의 어느 한쪽만을 가지고 이렇게 하여야 한대라고 말할 수는 없다.

3) 고찰

가) 증세

환자는 장성에 사는 나이 13세된 박소년

이 소년은 11세때 어느날 갑자기 땅에 넘어져 정신이 혼미해지고 입에서 흰거품을 품어내는 증세를 보이더니 얼마 지난 후 정상을 되찾았는데 그로부터 줄곧 2년동안을 혹은 한달에 한번씩 혹은 두달동안에 서너차례씩 같은 증세를 되풀이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 집에서는 살림도 어느정도 넉넉한 편인지라 癩症으로 진단을 하고 간증약을 쉼 수 없이 썼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금년에 와서는 하루에도 두서너차례씩 발광증을 보이게 되고 마침내는 시도때도 없이 발작이 심하여 몸은 야윽대로 야윽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도 못하며 언어도 불통하고 겨우 숨만 쉬고 있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고 한다.

나) 은수룡의 처방

은수룡은 판단하기를 병세가 위급하기는 하나 그러나 한달정도안에 죽을만한 그러한 증세는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선 급한 것은 목숨을 구해야 하는 만큼 거의 꺼져가는 陽氣를 불가불 복돋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黃芪를 君으로 하고, 人蔘과 白朮을 臣으로 하고, 甘草와 陳皮와 柴胡와 肉桂를 佐로 삼고, 附子와 升麻는 各 3푼씩을 使로 하는 처방을 작성하여 그 약을 29첩을 연복하게 하였다. 그 결과 정신이 점차 깨어나고 말도 하게 되었으며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기온도 되살아나며 살도 찌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간질병만은 여전히 계속되었기 때문에 鬱金 七兩에 明礬 三兩을 가루로 하여 녹두 크기만한 환약을 밥풀로 만들고 매 식후 백탕에 60개씩 복용케 하였다. 그랬더니 한계를 복용한 후 간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는 발작이 없었다고 한다. 끝으로 은수룡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대저 간질병이란 치료함에 있어 그 증세에 따라 補를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瀉를 먼저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理致가 워낙 오묘하고 복잡한 것이어서 그 중의 어느 한쪽만을 가지고 이렇게 하여야 한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7. 治金仁福幼子腹痛

1) 원문

丁卯臘月晦日夜 同里金仁福 揮淚塞喉 而言曰 十歲之子 自今日朝飯後 卒腹腹痛 踊躍顛仆 東衝西突 則急救以下滯安蛔之物 而小無效差 今則手足柔軟厥冷 面唇青黑 必死乃已 乞求殘命 余笑曰 子莫劫焉 用藥則必生 遂以白朮三錢 人蔘·炮芋各二錢 附子·甘草各一錢 使之煎濃 冷服矣 手足有溫 面唇微紅 伏而小睡矣 翌朝來拜賀 新歲則十歲 純陽之兒 芋附是忌 然應犯而犯 似乎無犯 余始覺 凡人之命 不在於天也

2) 국역

김인복의 어린아이의 복통을 치료한 이야기

정묘년 음력 선달 그믐날밤에 같은 마을에 사는 김인복이 찾아와 꺼억꺼억 목이 막히도록 울면서 말하기를, 열 살된 아이가 오늘 아침을 먹은 뒤 갑자기 복통을 일으키어 펄쩍 펄쩍 뛰는가 하면 벌떡 넘어지기도 하고 혹은 동으로 가서 부딪치고 서쪽으로 가서 부딪치기도 하기에 우선 급한대로 체를 내리고 회충을 진정시키는 약을 써보았으나 조금도 차도가 없고 지금은 수족에 힘이 없고 싸늘하며 얼굴과 입술이 파래져서 금방 죽을 것만 같으니 원컨대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내가 웃으며 말하기를 자네는 겁먹지 말게. 약을 쓰면 반드시 살아날 것이네 라고 하고, 백출 3전, 인삼과 구운 토란 각 2전, 부자와 감초 각 1전으로 처방하여 진하게 달여서 차게 마시도록 하였다. 그랬더니 수족

이 따뜻해지고 얼굴과 입술이 조금씩 붉어지면서 옆드려 자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다음날 아침에 김인복이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하였다. 생각건대 이 아이는 새해에는 10살이 되며 따라서 “순양”에 해당되는 나이이다. 그리고 순양의 아이에게는 원래 炮薑나 附子를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태가 그러한 원칙을 어겨서라도 써야한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무방한 것 같다. 여기에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특별히 하늘이 낸, 그래서 하늘이 돌봐주는 사람이라면 혹 몰라도, 보통 사람의 경우는 그의 목숨을 건지고 못건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약을 적절하게 쓰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3) 고찰

가) 증세

정묘년 설달 그믐날에 일어난 일이다. 이 정묘년은 1867년(고종 4)에 해당된다. 이날 이제 나이 10살인 김모 소년이 아침을 먹은 후 갑자기 복통을 일으켜 뛰고 넘어지고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자 그 아이의 집안에서는 ‘下滯安蛔之物’을 복용시켰는데 전혀 효과가 없고 오히려 손발이 풀리고 極冷하여지며 얼굴과 입술이 새파래져서 금방 죽을 것만 같은 상태였다고 한다.

나) 은수룡의 처방

은수룡은 위 소년의 父에게 절대로 겁낼 증세가 아니라고 안심을 시키고,

白朮 三錢

人蔘

炮薑 各二錢

附子

甘草 各一錢

으로 약을 지어 진하게 달여 차게 마시게 하였는데, 그 결과 手足이 따뜻해지고 얼굴과 입술이 점차 붉은 빛을 되찾았으며 옆드려서 잠도 잤다고 한다.

은수룡은 자기가 취한 치료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첨가하고 있다. 즉, 아이의 나이가 10세라면 이는 純陽에 속하기 때문에 원래는 炮薑이나 附子를 써서는 안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사태가 그러한 원칙을 어겨서라도 써야한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무방한 것 같다. 나는 여기에서 보통사람의 명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통사람의 슬기와 노력 여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8. 治申友百源家眷寒痛

1) 원문

申友百源 卽累世通家 親知甚密 己巳臘月二十八日 卒當母喪 舉家奔走 勞力不眠 其子婦 卒發寒戰 身熱頭疼而臥 媿父大劫而問余 卽用黃芪三錢爲君 人蔘白朮各二錢爲臣 小加柴 陳防羌 連服二貼 使之溫處不汗矣 翌朝起而看事 其老妻 亦如其痛 又用前劑二貼 翌朝又起 如常 其婢子年四十餘 亦如其痛 又用二貼 而又起 時當冬月 勞力不暇 寒邪乘虛而入 先犯 太陽一經 邪正相爭之際也 不問其餘 只以補正爲主 正氣盛 而寒邪不攻自退矣 豈有傳經入 裏之理乎 余不負雖外感 疎泄勿甚之戒矣 若用敗毒和解之劑 則虛者益虛 未知其未來矣

2) 국역

친구 신백원의 식솔들의 한통을 치료한 이야기

친구 신백원의 집안과 우리집안은 대대로 여러 世代를 두고 서로 트고 지내온 처지로 나와는 아주 친밀한 사이이다. 그런데, 기사년 설달 스무여드레날에 갑자기 모친상을 당하여 온 집안식구들이 상례를 치르느라 정신없이 분주하였으며 잠도 자지 못하였다. 그러자 그의 자부가 갑자기 오한이 나며 신열과 두통으로 누워버리게 되었다. 이에 그 시아버지인 신백원이 크게 놀라 나에게 달려와 의논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바로 황기 3전을 군으로 삼고 인삼과 백출 각 2전을 신으로 한 약에 소량의 시호와 진피와 방풍 및 강황을 加하여 2첩을 連服케 하고 또 몸을 따뜻하게 하되 땀은 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하였다.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평상시처럼 집안일을 돌보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친구의 늙은 마누라가 또 같은 증세를 보이며 눕게 되어 나는 또 앞서의 처방대로 약 2첩을 지어주어 복용케 하였다. 그랬더니 이 老妻도 다음날 아침에는 일어나서 평상시와 같이 활동하였는데 그러나 이번에는 40여살된 노비가 똑같은 증세로 통증을 호소하였다. 그래서 이번에도 같은 약을 2첩을 썼더니 이도 역시 다음날 아침에는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때는 겨울철인데다 과도하게 일을 하느라 쉬지도 못하고 보니 寒邪의 氣가 그 虛한 틈을 타 침습하여 먼저 太陽一經을 범하였으며 그래서 밖으로부터 들어온 邪氣와 안에서 그것을 막으려는 正氣가 한창 싸우는 중이었다. 그러니 그 밖의 조그마한 증세는 물을 필요가 없었다. 다만 正氣를 보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데에 힘쓸 뿐이었다. 正氣가 盛하게 되면 寒邪의 氣는 약을 써서 공격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물러나기 마련이다. 正氣를 제대로 補하는데 어떻게 그 寒邪의 氣가 경락을 통해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런 이치는 없다. 결국 나는 이번 치료에 있어서도 ‘雖外感 疎泄勿甚’이라는 훈계 즉, 비록 外感증이라 할지라도 疎泄之劑를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는 그 훈계를 어기지는 않았다. 만일 내가 그 훈계를 무시하고 “敗毒和解”를 위주로 하는 약을 썼다면 그 환자의 虛症은 더욱더 심해졌을 것이요 그리하였을 경우 그 아이의 목숨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

3) 고찰

가) 증세

기사년¹⁴⁾ 설달 스무여드레날 있었던 일이다. 이날 한 동네에 사는 친구 신백원씨 집에

서는 갑자기 모친상을 당하여 온가족이 밤을 새며 분주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신씨의 자부가 갑자기 ‘진한신열두통증’을 일으켜 쓰러지게 되었다.

나) 은수룡의 처방

은수룡은 즉, 黃芪 3錢을 君으로 하고, 人蔘 및 白朮 각 2錢을 臣으로 하고, 柴胡와 陳皮와 防風과 羌活을 佐로 한 약을 2첩을 연복하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되 땀은 흘리지 않게 하라고 부탁하였다. 그리하였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자부는 정상을 되찾아 일을 보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신씨의 처가 똑같은 증세를 앓게 되어 은수룡은 같은 약 2첩을 복용하게 하여 치료 완쾌시켰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40세된 그 집 여중이 똑같은 증세를 보여 이에 대해서도 역시 똑같은 약 2첩을 투여하여 치료 효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이상과 같은 환자 및 치료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때가 겨울인데 勞力を 과중하게 하다보니 ‘寒邪’가 虛를 틈타 太陽經을 침범하였으며 그 결과 사기와 정기가 서로 다투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는 무조건 ‘補正’을 위주로 하는 수밖에 없다. 正氣가 성하면 寒邪는 따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물러나기 때문이다. 정기가 성하면 환자가 經內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기본이치이다. 은수룡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가 평소에 ‘外感疎泄勿甚’하라는 경계를, 즉, 외감증에는 소설을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는 경계를 꼭 믿지는 않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환자의 경우에는 바로 그 ‘소설지제’인 ‘폐독화해지제’를 쓰면 허증만 더할 뿐 참으로 어떤 위험한 결말이 올지 모를 것이다” 라고 하였다.

9. 治月湖金參奉風症

1) 원문

長城月湖參奉金公 卽名門巨族 一省首富也 氣質壯大 顏色豐厚 膏粱子弟 風流豪傑 年五十七 倅然仆地 左身不收 一家驚動 扶臥床上 萬端救療 群醫雲集 藥者藥之 鍼者鍼焉 有加無減 將至半年 自成弊人 諸醫見逐 余有屢世之誼 卽欲往問 而有嫌自遷矣 一日送使付書而懇請 卽時發行 越嶺而去 問病後謝其晚來之過度 夜後朝診其脈 右寸微細 兩尺無輪 左關浮大 情知其病源 然年老生風 醫家之大忌也 問其這間用藥 出和劑五十餘張而示之 一一閱覽 則不知空谷生風 盡是風門中古方也 其中有參附調用者數張 余抄持而問 曰此藥則有小減無加害 是誰庸乎 公笑曰 此則在傍鄭班之所製 幸賴此藥 至于今日 故諸醫皆送 惟與鄭班相議度了 余稱讚不已 曰此藥雖善 未至其妙云 公請和劑 以熟地黃八錢 白朮炒黃四錢 牛膝二錢五分 麥門冬二錢 附子一錢 五味子七分 濃煎去渣 人蔘三錢 別煎沖而冷服云 鄭醫大驚 曰公平日所服藥 若入熟苧一二錢 則卽發滯氣 大便泄利 今用八錢 則其勢難禁 似不穩當 余笑曰 余之熟苧 與他自別 雖一二兩 萬無滯泄之理 明朝服之 午後則見驗矣 公之長子 聞言大喜 卽往製數貼而至 余閱封觀之 藥品甚好 使之煎置 翌朝冷服矣 將至日暮 果無滯泄 公大喜曰

14) 기사년은 1869년에 해당된다.

熟芩重多 而又不薑製 心實疑訝矣 果然無滯無泄 腹中甚安 是亦怪事 遂不疑而 連服十貼 則病雖無快 飲食倍加 更劑 八味湯 加牛膝·麥門冬·五味子 曰此藥則不計多數而服 則病必自然痊痾云矣 果然信而多服 風症盡去 至今三四年 無頗安過 然酒色難禁 不知來頭之如何矣

2) 국역

장성 율호에 사는 김참봉의 풍증을 치료한 이야기

장성율호에 사는 김참봉은 명문거족 즉, 일등양반집안이요 거기에 또 이 지방 제일의 부자이기도 하다. 그는 기골이 장대하고 얼굴이 아주 부덕하게 생겼으며 부귀한 집 자제답게 풍류를 즐기는 호걸이었다. 그런데 그의 나이 57세때에 갑자기 넘어지더니 왼쪽 몸을 움직이지 못하였다. 이에 온집안의 식구들이 놀라서 부축하여 침상에 누이고 여러가지로 치료를 시도하다보니 수많은 의사들이 모여들게 되었다. 그리하여 의원들은 제각기 약을 쓰고 침술사는 침으로 치료하였으나 증세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고 그러는 중에 거의 半年이 다되어 이제는 아예 폐인이 되다시피 하였다. 그렇게 되니 모든 의원들이 다 배척당하였다. 참봉공은 원래 나와는 대대로 교의가 두터운 처지인지라 먼저 찾아가서 문병을 하고자 하였으나 어쩐지 치료를 자청하는 것 같아 주저하였던 것인데, 하루는 김참봉이 사람을 시켜 편지를 보내어 나에게 치료해 줄 것을 간청하였다. 이에 나는 곧 출발하여 고개를 넘어 장성에 가서 상태를 묻고 지나치게 늦게 온 것을 사과하였다. 그리고 밤이 지난후 아침에 그 맥을 짚어보니, 오른쪽 寸脈은 미세하게 뛰고 兩寸은 뛰지 않으며 左關은 부대하였다. 그래서 나는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았으나 노년에 일어난 풍증인지라 의사로서는 가장 조심해야할 처지였다. 내가 그간에 쓴 약을 문자 화제를 내보이는데 50여장이나 되는 처방전을 꺼내어 보여주었다. 이 처방전들을 일일이 살펴본 왔더니 모두가 다 ‘空谷 즉, 빈골짜기에 풍이 생한다’라는 진리를 모르고 쓴 것이었으며 풍문중에 고방에 해당되는 것들이었다. 그런데 그 중에 인삼과 부자를 조제 사용한 것이 몇장이 있어 그것을 꺼내어 묻기를, 이 처방은 약간의 차도가 있고 더하지는 않았을텐데 누가 처방을 쓴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 김참봉이 웃으며 말하기를 이것은 지금 옆에 앉아있는 정양반께서 지은 것으로 다행히 이 약으로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그래서 다른 의사들은 다 물리치고 오직 정양반과만 상의하여 약을 쓰고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 처방에 대한 칭찬을 그치지 않으며 그러나 이 처방은 비록 약을 잘 썼지만 묘방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하였다. 그랬더니 공이 나에게 처방을 청하였다. 이에 나는 숙지황 8전, 백출과 볶은 황금 각 4전, 우슬 2전 5푼, 맥문동 2전, 부자 1전, 오미자 7푼을 처방하여 이를 진하게 달여서 찌꺼기는 버리고 거기에 다시 인삼 3전을 따로 달여서 섞어서 차게 마시라고 하였더니 옆에 있던 정양반이 놀라며, 참봉공은 평소에 약을 복용하는데 있어 만약 숙변 1·2전을 넣게되면 곧바로 체기를 일으키어 설사를 하는데 지금 숙지황을 8전을 넣으면 그 증세를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니 온당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였다. 이에 내가 웃으며 말하기를 나의 숙변은 다른 숙지황과는 다르오. 비록 한냥이나 두냥을 써도 절대 체하고 설사할 이치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다음날 아침에 약을 복용하였는데 오후가 되니 벌써 효험이 나타났다. 참봉공의 장자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곧바로 화제대로 몇첩을 지어서 가져왔다. 내가 약봉지를 열어 보니 약재의 품질이 매우 좋아서 이것을 달여놓았다가 다음날도 차게 마시라고 하였다. 그 이튿날 저녁때가 되어도 과연 (내가 예상하였던대로) 체기도 없었고 설사도 없었다. 참봉공이 크게 기뻐하여 말하기를 숙변이 그렇게 많고 또 그것도 薑製를 하지 않은 것이어서 마음으로는 사실은 의아스럽고 불안하였는데 약을 먹고보니 과연 체기도 없고 설사도 없으며 배속도 매우 편안하니 이 또한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고 하면서 그후로는 아예 의심하지 않고 10첩을 연거푸 복용하였다. 그랬더니 비록 병은 완쾌하지는 않았으나 음식을 전보다 배를 먹게 되었다. 그리하여 거기에 다시 팔미탕에 우슬과 맥문동과 오미자를 가한 약을 지어주면서 이 약을 몇 첩이라는 수를 엄두에 두지 않고 계속 복용하면 병은 반드시 나을 것이라 하였다. 그러자 참봉공은 내말대로 믿고 그 약을 많이 복용하여 결국은 풍증이 다 사라졌다. 그렇게 한 지 3~4년이 지났는데도 참봉공은 별탈없이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 다만 김참봉은 주색을 금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다.

3) 고찰

가) 증세

환자는 長城 월호에 사는, 그리고 양반으로 유명한 蔚山金氏인 김참봉이었다. 나이는 57세. 기질이 장대하고 안색이 풍후하며 부짓집 사람답게 풍류호걸로 이름난 사람인데 어느날 갑자기 땅에 넘어져 왼쪽이 마비가 왔으며, 이때부터 많은 의원들이 번갈아 가며 약을 쓰고 침을 놓고 하기를 거의 반년이 지나도록 하였는데 병세는 오히려 악화를 거듭하여 이제 폐인이 된 상태였다.

나) 은수룡의 처방

환자를 찾아간 은수룡은 우선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낸 후 아침에 환자의 맥을 짚어 보았는데 ‘右寸微細 兩尺無輪 左關浮大’하여 그 병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대강 알게 되었다. 그러나 원래 노인의 중풍은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먼저 그간에 복용한 모든 약의 和劑를 검토하여 보기로 하고 주인에게 요구하였더니 그 화제가 50여장이나 되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사실은 빗나간 것이었고 그 중에 인삼과 부자를 사용한 처방이 몇 장 있기에 그 몇장을 꺼내어 주인에게 “이 약은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었으면 있었지 해는 없었을 것인데 어느 의원이 처방한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주인은 “사실은 바로 이웃에 사는 정씨가 처방한 것으로 그 약을 먹고 다행히도 오늘까지 연명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그래서 다른 의원을 다 보내고 오직 정생원하고만 상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은수룡은 연거푸 칭찬을 한 후, 그러나 이 약이 좋기는 하나 사실은 조금 부족한데가 있다고 말하고 자신의 화제를 써주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地黃 8錢
 白朮炒黃 4錢
 牛膝 2錢5分
 麥門冬 2錢
 附子 1錢
 五味子 7分

을 진하게 달여 찌꺼기를 건져 낸 후 人蔘 3전을 따로 달여 섞어서 냉복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그 이웃에 산다는 정의원이 크게 놀라 말하기를 이 환자는 평소에 숙변 1·2전만 써도 바로 체증을 일으키고 설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환자에게 8전을 쓰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매우 불안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은수룡은 아무튼 자신이 쓰는 숙변으로는 그럴 염려가 없으니 내일 아침에 복용하면 내일 오후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과연 환자는 그 이튿날 아침에 위의 약을 냉복한 후로 석양이 되도록 체증도 설사증도 없었으며 오히려 복증이 매우 안정이 되고 그후 연이어 10첩을 쓰고 난 후로는 병은 비록 완쾌는 되지 않았으나 음식의 양이 평소의 배로 늘어났고 거기에 다시 牛膝과 麥門冬과 五味子를 가한 팔미당을 계속 복용케 하였더니 예측한대로 잠도 잘자고 풍증도 다 사라졌다고 한다. 그후 3~4년이 지난 후에도 아직은 '無煩安過'하고 있다고 한다.

10. 古阜李友允景見害

1) 원문

噫道之行世 難於蜀道 古阜芝村李允景 年四十餘 膝下無血肉 每每恨之 晚來幸得外房一子 愛育無比 使之各居於高敞地 往來弄璋 一日來宿其家 有何所犯 翌朝身體不安 忍耐歸家 仍以病臥 醫者用敗毒和解之藥 病轉入深 更用寒冷攻下之劑 不省人事 言語不通 病者指揮家人 急往高敞而問余 余大驚 急劑黃芪五錢 白朮·人蔘 各三錢 麥門冬 二錢 附子·五味子 各七分 以連服二貼後 卽地更奇之意 申申言託于來人 適楊亭居金友望之在傍 素知余手段 芝村人發去之後 金友曰 此藥斷當不用矣 余云病人信我 必無是理 金友曰 在傍無醫然矣 醫若有之 必不用也 果然醫者見劑 高聲大罵 曰熱鬱之地 豈可以熱藥助之乎 病人昏迷 中有急煎 此藥之狀 然言語不通 主張無路 遂不用此藥 以他藥連用矣 第翌日而逝 果中金友之言 嗚呼魂飛九天 怨之者誰

2) 고찰

고부에 사는 친구 이윤경이 (결국은) 죽고만 이야기.

아! 슬프도다. 옳은 도가 세상에 행해지기란 저 중국의 험준한 측도를 지나는 것보다 험한 것 같다.

고부 지촌에 사는 이윤경은 마흔이 넘도록 슬하에 혈육이 없어 항상 이것을 한으로 여겼는데 늘그막에 다행히 첩에서 사내아이를 얻어 그 아이를 매우 어여쁘게 여기었으며 이들 모자를 고창땅에 따로 살게 하였다. 그리고 이윤경은 고창을 왕래하면서 아이를 귀여워하며 낙을 즐겼다. 그러나 어느날 하루는 그 고창집에 가서 잤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음날 아침에 몸이 불편하였으나 이를 참고서 고부 본가로 돌아왔는데 이내 병으로 드러눕게 되었다. 이에 의사가 폐독과 화해의 처방을 써 치료하였지만 병은 점점 더 심하여 갔으며 이에 그 의사가 또다시 한랭공하지제를 썼더니 이번에는 아예 인사불성, 언어불통의 증세로 변했다.

이에 그 환자가 집안식구에게 지시하여 급히 고창에 가서 나에게 의논하라고 하니 나에게 달려왔다. 이에 내가 크게 놀라 급히 황기 5전, 백출·인삼 각 3전, 맥문동 2전, 부자·오미자 각 7푼을 넣어 약을 지어 2첩을 연복하고 다시 소식을 알려달라고 약을 가져러 온 사람에게 신신부탁을 하였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고창 양정에 사는 친구 김망지가 옆에 있었다. 그 친구는 내가 약을 쓰는 방법을 알고 있어 그 고부에서 온 사람이 떠난후에 나더러 말하기를 “이 약은 내가 장담하는데 절대로 복용하지 않을 것이네”라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환자가 나를 믿고 있는 처지니 그럴리는 없네”라고 대답하였더니, 그 친구가 또 말하기를 “만일 환자옆에 어떤 의사가 없다면은 그럴것이네, 그러나 의사가 있다면 절대 쓰지 않을 것이네”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 그 환자옆에는 마침 의사가 있었던 모양이다. 그가 내가 보낸 약재를 보더니 크게 꾸짖으며 말하기를 “환자의 몸이 불덩이인데 어찌 거기에 열약을 써서 화를 조장한단 말인가”라고 하였다. 그때 환자는 혼미중이었으나 약을 빨리 달여서 가져오라는 뜻으로 몸짓을 했는데 그러나 말을 하지 못하는 처지이므로 자기주장을 알릴 방법이 없었고 결국 그 약을 쓰지 않고 다른 약을 연거푸 썼는데 바로 그 이튿날 죽고 말았다. 이려고 보니 친구 김망지의 말이 과연 맞게 되었는데 그러나 슬프다! 환자의 혼은 이미 구천에 갔으니 누구를 원망한단 말인가?

3) 고찰

가) 증세

고부에 사는 이윤경이라는 사람은 나이 40세가 다 되도록 자녀를 두지 못하여 항상 이를 서운해 하던 중 첩의 몸에서 아들 하나를 얻게 되었고 그들 母子를 고창땅에서 살게 하고 기회 있을때마다 왕래를 하게 되었는데 어느날 그 소실의 집에서 자고 난 아침에 병이 났으며 이를 어기고 본가에 돌아온 후로는 아예 병석에 눕게 되었는데 의원이 폐독화해의 약을 쓴 결과 병이 오히려 악화되었고 그러자 이번에는 그 의원이 한랭공하의 약을 썼는데 그 결과는 오히려 불성인사, 언어불통의 상태로 악화되었다고 한다.

나) 은수룡의 처방

위 소식을 들은 은수룡은,

黃芪 5錢

白朮

人蔘 各 3錢

麥門冬 2錢

附子

五味子 各7分

을 서둘러 약을 지어 2첩을 연복하도록 부탁을 하고 심부름을 온 그 사람에게 즉시 결과를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그런데 그 약을 받아본 환자의 집에서는 마치 거기에 한 의원이 있어 약제를 펴보고 크게 화를 내며 말하기를, “현재 환자의 상태가 ‘열울’한 상태인데 어찌 거기에 열약을 쓴단 말인가”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러한 가운데도 환자는 가족들에게 빨리 약을 달여달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불행히도 워낙 병세가 위중하여 말을 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가족들은 옆에 있는 의원들의 주장만 듣고 결국 다른 약을 쓰다가 그날 밤에 죽었다고 한다.

다) 참고사항

요컨대, 은수룡은 곁에 나타난 병증으로 보면은 꼭 한냉공하지제를 써야 할 환자에게 附子가 포함되는 열약을 쓰려고 한 것인데 제3자의 방해로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경우이다.

11. 治婢子急症

1) 원문

一朝與諸友 坐而談論 不時自內庭 有叩門而告急 驚問其故 曰二十歲婢子 方將炊飯之際 忽地有心煩口渴之症 飲冷水少許矣 隨卽仆地 精神昏迷 頭肩甚痒 雙手爬之 則如粟米亂播 手過處如過鑿之狀 滿身紅熱 不省人事云 往而觀之 則果如其言 余急煎熟芩 六錢 牛膝·麥門冬 各二錢 附子·乾薑 各一錢 吳茱萸 五分 伺其至冷而服之矣 少頃痒症盡去 紅熱皆退 精神始爽 誰知夜宿冷處 相火上浮 作煩口渴之際 冷水忽入 助其伏寒火則 外越作痒色紅 如播粟米 本形露出 若用熱門中 寒冷之藥 則頃刻之間 其斃可見 薑附吳茱 祛寒引火 牛膝·麥門冬 驅逐歸家 以熟芩壯水之劑 克而覆之 自成太平 浮越之假火 焉敢欺我乎

2) 국역

(우리집) 여종의 급증을 치료한 이야기

어느날 아침에 여러친구들과 앉아서 담론을 나누고 있는데 느닷없이 안채쪽에서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리며 급한일이 생겼다고 말하였다. 이에 놀라 그 까닭을 물으니, 20살된 노비가 방금전에 밥을 지으려던 참인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입이 바싹바싹 마르는 증세가 있어 차가운 물을 조금 마시더니 땅에서 뒹굴기 시작하고 정신이 흐릿하며 머리와 어깨에는 심한 가려움증을 느껴 양손으로 긁어대고 보니 그자리가 마치 좁쌀을 훌쩍려놓은 것 같이 되었고 또 그 손이 지나간 곳은 참혹한 모습을 띄게 되었다. 그리고 온몸이 열로 붉게 달아올라 있으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살펴보니 과연 상태가 그 말과 같았다. 이에 내가 급히 숙변 6전, 우슬과 맥문동 각 2전, 부자와 건강을 각 1전, 오수유 5푼으로 약을 지어 달여서 식혀서 마시게 하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그 약을 먹고 조금 지나서 가려움증이 다 없어지고 몸의 열도 다 사라졌으며 정신도 맑아졌다.

이 여종의 경우, 밤에 찬 곳에서 자는 동안 相火가 위로 부상하여 번열과 갈증을 느끼게 된 것인데 거기에서 갑자기 냉수를 마시게 되니 그 냉수가 몸안에 잠복되어 있던 “한화”를 충격하여서 그 한화가 밖으로 나타나 피부에 가려움증이 생기고 몸이 붉게 달아오르며 온몸에 좁쌀을 뿌린 것 같은 모습을 띄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다 만일 하나라도 열문에 속하는 한냉의 약을 쓰게 되면 환자는 즉각 죽게 되는데 이러한 깊은 이치를 누가 알겠는가.

내가 쓴 약제중에 생강과 부자, 그리고 오수유는 한을 몰아내고 들뜨고 화를 제자리로 이끌어오는 효과가 있으며 우슬과 맥문동은 몰아서 제자리에 돌아가게 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다시 숙변이라고 하는 수기를 크게 보하는 장수지제를 쓰게 되면 완전히 병상을 덮어 스스로 태평한 상태를 이루게 되는 법이니 들뜨고 제자리를 떠난 “가화”가 어찌 감히 내 의술을 속일 수 있겠는가.

3) 고찰

가) 증세

20세된 여종이 부엌에서 밥을 짓다가 갑자기 ‘심번구갈’증세를 보이더니 냉수를 마신 후 이번에는 땅에 엎드려져 있는데 정신이 혼미해지고 머리와 어깨에 심한 가려움증이 생기자 그가 두손으로 긁으니 손이 닿는 곳마다 좁쌀같이 일어나 온몸이 홍열의 상태가 되고 인사불성에 빠졌다.

나) 은수룡의 처방

은수룡은,

熟苧 6錢

牛膝

麥門冬 各 2錢

附子

乾薑 各1錢

吳茱萸 5分

을 넣어 달인 후 약이 식은 뒤 마시게 하였다. 그 결과 얼마 안가서 가려움증도 없어지고 붉은 반열도 없어지고 정신도 맑아졌다고 한다. 은수룡은 이 환자의 증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밤에 찬방에서 잔 사람이라 相火가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 결과 심번구갈의 증세가 생긴 것인데 거기에 갑자기 냉수가 들어가니 결국 체내에 있는 숨은 한기를 조장하게 되어 그 결과 화가 외부로 넘쳐서 가려움증과 온몸에 좁쌀을 뿌린 것과 같은 증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증세에 대해서 熱門에 속하는 한냉의 약을 쓰게 되면 환자는 즉각 죽게 된다.

내가 쓴 약재 중 생강, 부자, 오수유는 한기를 몰아내고 제자리를 잃은 화를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고, 우슬과 맥문동은 그 火를 몰아서 원래의 집에 돌아가게 하며 숙변은 수기를 크게 돕는 약재로써 이 숙변이 들어가 火를 덮을 경우 스스로 태평한 상태가 회복될 것이니 이렇게 되었을 때 浮越성을 띤 假火가 어찌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V. 결론

이상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한의학에 관련된 기본 이론 내지 임상처방은 원래가 유구한 세월에 걸쳐 무수한 사람들에 의해서 개발된 각종 경험방을 바탕으로 하여 발전하여 왔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이미 하나의 공인된 처방으로서 마치 일종의 '처방법전'처럼 수용되고 있는 것들도 원래는 어느 개개인들에 의해서 무수한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쳐 하나의 경험방의 형태로 전해왔고 그것들이 역시 많은 의원들에 의해서 재검토, 재검증의 과정을 거친 끝에 하나의 표준처방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곧 앞으로도 임상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의원들에 의한 많은 경험의안이 계속 발표되고 그것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은수룡이 남긴 경험의안은 매우 귀중한 연구자료라고 생각된다.

둘째, 은수룡은 자신의 의안을 정리함에 있어, 병증별로 나열하고 그 아래에 기존의 처방과 연결시켜서 첨가하는 방법이 아니라, 사례별로 의안 그 자체만을 소개하였다는데에 차이가 있다.

셋째, 은수룡의 경험의안은 사회사적인 관점에서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은수룡이 남긴 의안에는 여러 환자들의 이름, 거주지, 병명, 치료과정, 치료내용, 성공사례 및 失治의 사례 등을 자세히 밝혀 놓았다는 점이다.

넷째, 은수룡이 취한 治法의 특징은 거의 모든 처방에서 附子, 人蔘 등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끝으로 은수룡의 醫論 내지 醫術을 이해하는 방편의 하나로 그가 쓴 경험방 서문을 옮기고자 한다¹⁵⁾.

우리 집안은 대대로 내려오는 의가집안이기에 때문에 『醫學入門』이니 『萬病回春』이니 『濟衆新編』이니 또는 『東醫寶鑑』이니 하는 등의 책들이 있어서 늘 가까이에 놓고 보았으며 그래서 그것들을 혹은 외우고 혹은 마음에 새겼다. 그리하여 그 후 환자를 대할때마다 증세를 보고 약을 쓰는데 전적으로 위의 古方들에 의거하였다. 그러나 귀한집에서 잘먹고 자라나서 연약한 자들은 대개 약을 써도 효과를 보기가 어렵고, 가난한 집안에서 소탈하게 먹고 거칠게 자란 건장한 사람들은 요행이도 낮은 수가 있었다. 그리고 傷寒으로 인한 음증이나 잡병에 속하는 괴증의 경우는 역시 古方대로 치료하는데 결과가 일정치 않아 혹은 실패하기도 혹은 성공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실패하여 환자가 죽었을 경우에는 “원래 받은 命이 그것뿐이었다”고 그 탓을 하늘에 돌리고,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사실은 그 사람의 타고난 수명이 길어서 살아난 것인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의사인 내가 능해서 고친 것이라고 생각하곤 하였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의가들이 거의가 다 그러한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가 나 스스로 조금 진리를 깨달은 후로는 복잡하고 어려운 古方을 따르지 않고 오로지 ‘구본’의 한가지 법을 지키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그렇게 한 지 몇해동안에 병을 완전히 치료하여 목숨을 구한 환자가 매우 많았으며 그 결과 집안사람들이나 친지들로서 병으로 크게 고통받는 사람이 없었다. 대저 사람의 생명은 水火氣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이 전부이다. 이밖에 또 무엇이 있겠는가. 병으로 인해서 밖에 나타나는 증세는 참으로 여러가지로 살피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 병이 생기게 된 그 근원을 살핀다면 거기에 오직 하나의 이치가 있을 뿐이다. 그 이치란 하나는 火盛이요, 둘째는 水渴이요, 셋째는 氣虛요 넷째는 血衰이다.

화성은 첫째로 腎水가 혹은 말라말거나 혹은 냉한이 갑자기 들어와서 龍火가 발동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요 둘째로는 노기가 치켜 올라 마음의 통제력을 잃어 뇌화가 상충하게 되는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다음에, 수갈이란 혹은 과도하게 정욕에 빠져 체내의 정

15) 원문은 다음과 같다.

余本屢世之醫家 有入門·回春·濟衆·寶鑑 等冊子 常目在之 或誦於口 或銘於心 臨症用藥 一依古方 則膏梁之軟弱者 最難見效 茹藘之壯健者 僥倖得差 而傷寒之陰症 雜病之怪症 如法療治 命盡則歸之於天 有效則不知本壽之長 而自爲己能 非但惟余 舉世皆然
余自微覺之後 不事支難之古方 只守救本之一法 邇來幾年 全活頗多 家間親知 運痛未見 大抵人生 惟水火氣血之外 更有何物 病之外變 萬像難測 來之所由 一理惟在 一則火盛 二則水渴 三則氣虛 四則血衰
火盛者 或腎水枯涸 或冷寒暴入 龍火發動 或怒氣格騰 秋失其令 雷火上沖也 水渴者 或用之太過 或年老無資也 氣虛者 或勞力過度 或飲食減少也 血衰者 惟在於氣之不行也 審其源由 知其外變 則萬無一失 然其中難言者有三 一曰症勢之是非 二曰用藥之輕重 三曰病家之不信 故經驗之方 次第錄後 似爲鑑者之一助也

액이 말라 받거나 혹은 너무 연로하여 정력의 밑천이 아예 고갈된 현상이다. 다음에 기허는 혹은 과도하게 노동을 하거나 혹은 음식을 줄인데에서 나타나는 증세요, 혈쇠는 오직 기가 통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현상이다. 따라서 모든 병을 대함에 있어 먼저 그 병의 원인을 살피고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밖으로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알게 되면 그 병을 치료함에 있어 절대로 실수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에도 어려운 문제가 세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증세가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일이요, 둘째는 약을 쓰되 그 경중의 정도를 어떻게 옹계정하느냐 하는 문제이며, 셋째는 환자가 의사를 믿지 않는데에서 오는 어려움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간 내가 경험하였던 치료의 결과를 여기에 차례로 기록하려고 한다. 그것들이 보는 이로 하여금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서이다.